

연중 제30주일

제 1독서 : 출애 22, 20-26
제 2독서 : 1데살 1, 5C-10
복 음 : 마태 22, 34-40

숲 정 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 22, 37-39)

강론

소리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정천봉 신부 / 고창 천주교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질문과 대답이지만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가장 큰 계명을 물었는데 가장 큰 계명인 “하느님 사랑”만을 대답하지 않고 “이웃사랑”도 함께 말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에, 같은 대답을 주시는 걸 보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우리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와 이웃의 관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함께 어울려야 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으뜸계명에 대한 중요함을 압니다. 나름대로 변명이라도 하면서 그 사랑에 소홀했다고 고백성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으뜸계명 못지않게 중요한 이웃사랑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최후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면(마태 25, 31참조), 오히려 이웃사랑이 야말로 결정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사랑이라는 얘기는 듣고 또 들은 식상한 얘기이고 새로울 것 전혀 없는 뻔한 얘기입니다. 사실 놀랄만한 소식은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교회 안에서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도 뻔한 얘기지만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느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지만, 이웃사랑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마태 22, 39)

일벌백계(一罰百戒)

‘본보기로 하나를 처벌하여 백을 경계토록 한다’는 이 말은 조직 사회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적용되는 말이다. 특히 기강이 확립되어야 하고, 여타 부정과 비리가 자리잡아서는 안될 공직 사회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다.

한 나라의 국방장관을 지낸 사람이 부정과 비리와 부패에 관련되어 나라 망신을 톡톡히 시켰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문민정부 들어 군의 상징이라고 하는 전 국방장관이 무기거래상에게 약점을 잡혀 질질 끌려다녔다는데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중에는 자신 말고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더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다. 발언이 사실이라면, 가장 깨끗해야 할 이 나라의 공직 사회는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라는 확대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들어 개혁이 추진될 때, 많은 국민들은 환영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개혁은 실종되었고, 부정과 비리와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로 지탄 받은 사람들마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잡아들일 때의 일벌백계는 잊혀져 버린 것이다. 이제 일벌백계를 통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호언은 공언(空言)이 되어 버린 것 같다. ㅁ

숲 정 이 산책



2000년 대희년

새 하늘 새 땅

김진소 신부 / 호남교회사 연구소

김대건 성인이 사제수업을 하던 마카오에는 17세기에 예수회가 건립한 ‘마테르 데이’ 즉 ‘천주의 성모 성당’이 있었다. 이 성당은 예수회가 동양 최초로 세운 성바로로 대신학교의 부속 성당이어서 ‘성바로 성당’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성당은 화재로 인해 목조로 된 뒷면은 전소되고 대리석으로 건축된 전면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을 담은 전설같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1835년 1월 26일 밤 마카오 앞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 항해중이던 배들은 칠혹같은 암흑에서 어디로 정박할지를 몰라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절망에 빠졌었다. 그런데 성당 주방에 켜놓은 촛불이 강풍에 넘어져 성당에 불이 나자 이 불길을 등대 삼아 방향을 잃고 헤매던 배들이 마카오로 찾아 들어와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화재를 두고 이렇게 해석했다. “생각해 보아라. 주방의 촛불이 강풍에 넘어졌는데 어떻게 꺼지지 않았는가. 이것은 성모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집을 태운 것이다.”

박해시대의 한국교회 신도들은 온몸을 사르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했다. 조상들은 천주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혹독한 고통과 죽음을 겪었다.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도들의 삶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이들은 신도들의 모범적인 표양을 보고 천주교는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종교라하여 감동하고, 참혹한 죽음을 견디면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모습을 목격하며 하느님이 계시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겠느냐며 현세의 행복을 위하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찾으며 방황하던 삶을 청산하고 스스로 생명의 문을 두드렸다. 조상들의 전교는 만 권의 책이나 천 시간의 실교가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는 삶이었다. 모진 고난과

역경에도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자 행동하고, 사육의 몸을 살라 진리를 증거하므로 무수한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했다. “성인은 자신을 죽여 천하를 구한다(聖人則而殉天下)”는 말 그대로였다.

믿음은 세상을 살맛나게 했다. 교우들은 자신의 신원이 천자(天子)로 인식하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서로 천사처럼 존경했다. 그 뿐인가. 목숨을 보존하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룬 교우촌에서는 모두가 어려운 처지였지만 가진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모여 성서를 읽고, 교리를 토론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함께 바치고, 격정과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옥에 갇혀서도 함께 성서를 읽고 믿음을 다짐하고 공동으로 기도를 바치며 격려하므로 감옥은 마치 수도장(修道場)을 방불케 했다.

조상들은 천주교가 구령과 천국복락만이 아니라 대동세계를 이룩하여 민초들이 꿈에 그리는 이상사회를 이루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천주교를 통해서 신분 위주의 등용이 아니라 능력본위의 인재등용을 기대하였고, 비행기와 기증기 등 갖가지 서양 문물을 들여와 향유하려는 기대에 부풀었으며 이 나라의 난관을 극복할 처방전과 구급약을 가진 희망의 종교로 믿었다. 조상들은 살맛나는 세상, 신바람나는 세상인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간절한 희망으로 장구한 세월 동안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늘 나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향이었다. 순교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대연자약하며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희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한갓 아리랑 고개 정도로 여긴 까닭이다.

• 7회에 걸쳐 연재해 온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이번호로 끝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진소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p>연지곤지 웨딩 이벤트 드레스 35만~40만원 <신부화장, 부케, 페백옷 무료> 유순이(가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앞 ☎(주)82-2347 (야)225-5755</p>	<p>015 팔달통신 - 전북이동통신 팔달로 대리점 - 휴대폰, 카폰, 호출기 오현중(스테파노) 유미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0015~6</p>	<p>대건관광 여행사 가을맞이 새 상품으로 여행자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대건관광여행사 강예순(프란치스카) 김욱(바오로) 정읍시 수성동 중앙병원 앞 정읍시 상평동 공설운동장 앞 ☎33-0877~8, 32-3893~4</p>	<p>진도 패션 전주점 모피, 무스푹, 남성복 전문매장 • 연중무휴 손한성(바오로) • 정정남(가타리나) 전주시 교사동(구)역전오거리 천보당 ☎ 231-2005-7</p>
--	---	---	---

잡간

애령회원들을 위한 피정 안내

인간에게 죽음은 영원한 종말인가...
잔인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저주가 될 뿐인가...

그러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게 한 십자가 죽음의 신비, 그 죽음을 관조하고
그 신비를 생활 속에 구현할 때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존귀한 것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있게 한 삶은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가!

11월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좋은 몫에 참여하고 계신
본당 내의 애령회원님들을 위한 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피정은 교회 역사 안에서 본 우리 신앙 선조들의 애령활동에 대한 김진소
신부의 강의를 통하여 애령인들의 진정한 역할과 위치를 확인해 보고, 의사이며
신앙인으로서 직접 죽음에 직면하는 이들을 보고 만나면서 느껴온 안득수 형제의
생생한 체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박찬길 신부의 강의를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묵상으로 엮어 보았습니다.

애령회원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자신과 타인의 죽음을 바라보며 묵상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신앙인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11월 2일(토) 오후 3시~3일(일) 점심까지
- 장소: 천호 피정의 집
- 참가대상: 각 본당 애령회원 및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 신자
- 참가비: 1인당 25,000원
- 신청 및 문의: 전주교구청 사목국 (0652)85-0041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11월 4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초청강사: 신경림(시인)

1. 축! 견진: 11월3일(일) 오전 10시30분, 창인동 성당
2. 교구장 사목방문: 10월29일(화) 함열, 황등 성당
3. 교구장 2천년 대희년 주교특별위원회 참석: 10월31일~11월1일
수지성모교육관
4. 고창 양로원 축복식: 11월2일(토) 오전 11시30분, 주례: 이병호 주교
5. 초등부 성탄연수: 11월2일~3일, 나바위 피정의 집
6. 가톨릭 문우회 모임: 11월2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1층
7. 사랑의 다리 회원 피정: 10월29일(화) 오전 10시, 치명자산 성당
8. 성모기사회 피정: 11월2일(토) 오전 10시, 효자동 성당
9.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소녀단원 교육: 11월3일(일) 오전 10시
전동 성당 교육관

* 축! 영명: 28일(성서문과 유다) 박중신, 한봉섭, 서정현, 장상호, 이완재,
송년홍 신부님

요심이 (1209) 김병오



용안 성당 바자회

“초대합니다”

- 일시: 10월31일~11월3일
- 장소: 삼천동 성당

사랑의 다리 피정

- 일시: 10월29일(화) 오전 10시~오후 4시
 - 장소: 치명자산 성당
 - 준비물: 미사도구, 점심
 - 회비: 1,000원
 - 참가신청: ☎ (0652) 84-5290
- 사회복지회

덕진 삼익피아노 (서정우 특약점)

- 국가공인 1급 A/S 지정점
- 36개월 할부, 중고보상교환
- 서정우 · 이해경(클라라)
- 북전주전화국 ← 법원 중간
- ☎ 253-3232, 254-2631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0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본 특별우대
-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 구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 252-0103~4

사랑의 씨튼수녀회 성소 모임

-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고졸이상 30세미만 미혼여성
- 일시: 11월2일(매일 첫째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전주 동산동천주교회내 수녀원
- 문의: (0652)212-3233, (062)571-3004

여직원 구함

- 자격: 고졸이상, 경리업무경력자 우대
-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전부착)
- 기간: 10월 31일까지
- 문의: 우리밀살리기운동전국지역본부 ☎ 84-4205, 87-8290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주임신부 82-9663 사부실 82-9661 주임신부 범영배
F A X 82-9664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1. 가정방문: 30일 후 2시-중노10,11반
31일 전 9시30분-중노12반, 기린방1,2,3반
 2. 성당 물청소: 30일 어머니미사 후
* 청소도구 지참 바람
 3. 반희장 단합대회: 1일, 지리산
 4. 장우회 단합대회: 3일 전 9시 성당입구 출발, 참가비-일만원
 5. 모임: ①천사의 모후Cu., 성우회, 기우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제수형제회-오늘 후 2시
③울트라야-3일 공식미사 후
 6. 축! 축인: 3일 12시
신랑-김용오(바테오) 신부-이효녀(바리아)
 7. 빈첸시오회: 화장지 판매
 8. 용안성당 건립을 위한 바자회 티켓 판매: 사부실, 1장-1,000원
* 장소-삼천동 성당
 9. 금주 전례: 새벽-인후1구역, 저녁-인후2구역
공식 안내-성우회, 해설-이봉기, 독서-①노관석 ②강희자
신자들의 기도-정영락, 김정자, 봉헌-진도열 부부
 10. 차주 전례: 새벽-중노1구역, 저녁-중노2구역
공식 안내-장우회, 해설-박윤순, 독서-①전자석 ②양선순
신자들의 기도-손만술, 신순이, 봉헌-박준근 부부
 10. 금주 청소: 중노 12, 기린방 1반
 12. 차주 청소: 기린방 2,3반
- 지난주 봉헌금: 1,038,200원 교무금: 1,286,000원
 2차헌금: 404,72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부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박상기

1. 복자성당 전신자 1일 대피정 "본당은 우리": 11월 3일(일)
* 전신자 빼집음이 오늘까지 신청바람.
 2. 저녁미사 시간 변경: 11월 5일부터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
* 성서교실과 예비자 교리는 7시 반에 시작
 3. 애령회 교구 피정: 11월 2일~3일, 천호 피정의 집
 4. 초등부 교리교사 실탄 연수: 11월2일~3일, 나바위 피정의 집
 5. 성우회, 대건회 연기: 3일 피정 관계로 10일(다음주일)로 연기
 6. 오길수(시몬)형제님 신증: 17일 신증하셨습니다.
 7. 차주 모임: 사목회-3일 저녁미사 후
 8. 금주 전례: 해설-유두석, 독서-문관철 부부
봉헌-김홍현 가족
 9. 차주 전례: 해설-김순형, 독서-이동원 부부
봉헌-정민모 가족
 10. 성당 청소: 11월 2일(토) 다위의 탐Pr., 셋별r.
- 지난주 봉헌금: 679,800원 교무금: 685,000원
 2차헌금: 299,050원

*** 상 관** 주임신부 85-6654 사부실 85-6652 주임신부 김병업
F A X 85-6652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강덕용

- ◎ 10월은 로사리오(전교의 달)성월입니다.
1. 금주 모임: ①성모회, 자모회-공식미사 후
②성마리아 Co.-전동성당, 후 2시
 2. 차주 모임: ①요세화, 동정녀들의 모후Cu.
②사목회-2일(토) 후 7시, 사부실
 3. 성소후원회비: 구역장님께 납부 바람.
 4. 성가에 관심있으신 분: 수녀님, 전례부정에게 신청바람.
 5. 본당발전을 위한 2차헌금: 다음주일 있습니다.
 6. 성당 청소: 금주-바다의 별Pr.
차주-천사들의 모후Pr.
 7. 금주 전례: 해설-이훈봉, 독서-①강덕용 ②이순자
봉헌-김종석 가정
 8. 차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김완석 ②김갑자
봉헌-황상호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32,130원 교무금: 230,000원
 2차헌금: 152,850원

*** 서학동** 주임신부 84-8307 사부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본당의 날: 12월 8일 입니다.
- * 오늘부터 6주 동안 참석하여 준비합니다.
①일상기도(아침, 저녁, 삼종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②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 평일미사에 참석합니다.
③27일(일) 후 2시 본당신부님의 용기 교육에 전원 참석합니다.
④성서 읽고 쓰기(필사) 운동에 많이 동참합니다.

1. 축! 흔배: 신랑-김정현(빈첸시오)
신부-이은아(가타리나)
2. 금주 모임: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유아방
3. 차주 모임: ①꾸리아-11월3일(일) 후 2시, 강당
②사목회-11월5일(화) 후 8시30분, 회합실
③자모회-11월7일(목) 레지오회합 후, 회합실
4. 미사봉헌: 금주-14반, 차주-15반
5. 청소 안내: ①금주-평화의 모후Pr.
②차주-정의의 동정녀Pr.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부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송영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주환

1. 금주 모임: ①교무금 납부주일
②성 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2. 성 가정회: 1일 전 11시
 3. 병자 봉성체: 1일 후 2시
 4. 차주 모임: ①제수글라라 형제회-후 1시 30분
②애덕의 모후 꾸리아-후 3시
③요세화-후 6시 ④울트라야-후 8시
 5. 쌍두스 임연 개편: 단장-최경완(첼바)
부단장-엄기범(가브리엘), 심정미(바리아)
총부-이연숙(프리스카), 회계-이정태(레지나)
지휘자-이철수(바오로)
 6. 고정 전례
①교백 성사-평일미사 후
②혼인 번담-매주 토요일 후 3시 30분
③유아 세례-홀수달 둘째 토요일 후 3시
④성체강복 및 조배-매월 첫 목요일 전 10시
⑤병자 봉성체-매월 첫 금요일 후 2시
⑥차량 축복식-홀수달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후
- ※ 회장실 신축공사 및 담장 보수 관계로 모든 주차는 일제 금합니다.
※ 성지개발 헌금 정성껏 봉헌 바랍니다.
 지난주 봉헌금: 2,199,130원 교무금: 1,736,000원

*** 평화동** 주임신부 232-5001 수녀원 232-5004 주임신부 이삼섭
F A X 232-5003 사부실 232-5005 사목회장 강삼근

- ◎ 평화성전신축에 우리모두 동참합니다.
1. 오늘 모임: ①울트라야, 봉송회-공식미사 후,
②3/4분기 애령회-27일 전 9시~10시
 2. 주간 모임: ①형제기도회6구역-28일
②형제기도회 8구역-29일
③빈첸시오회-29일 10시
④M.E 모임-29일 8시
⑤형제기도회 8구역8,9반-31일
 3. 봉성체(1반): 30일
 4. 가정방문: 삼성강남, 우미, 현대아파트-31일 9시30분
 5. 유아세례: 2일 3시(오늘까지 접수바람)
 6. 선전신축봉헌금 신인구좌(1구좌: 100만원): 최영석5, 김정근5, 함성해3, 이항성, 최만녀, 정경순, 김용오, 김정민, 이정숙, 김경화 각 1구좌, 정치영, 박윤택, 진민석 각 0.5, 김복순, 이점례, 박명희, 송윤성, 신희숙 각 0.3구좌.
소계 233구좌, 총계 457.9구좌
 7. 선전신축 봉헌금 납부: 박준상 4만, 이순이 50만, 김영환 10만, 송희중 200만, 이명남(타본당) 50만, 최만녀 10만, 안수희 50만, 이귀례 2만, 이완남 3만, 임위순 2만, 조정근 5만, 익명 5만, 이인순 10만, 국경희 50만, 김해경 30만, 김봉신 3만, 박민세 50만
소계 5,340,000원, 총계 69,685,020원

지난주 봉헌금: 1,533,170원 교무금: 1,746,000원

상설 고백소: 매주 금요일 오후 2시~5시, 전동성당